

7월 국회 시작... 민생·개혁법 속도 낼까

의장단·원내대표 오늘 상건례...상임위원장 선출 등 논의 개혁입법·인사청문회·법사위 제도 개선 등 압축 즐비

국회가 지난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16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며 20대 국회 하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를 본격 가동한다.

15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상건례를 겸한 회동을 갖고 20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비롯한 7월 임시국회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선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원 구성 문제를 비롯한 7월 국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회가 40여일 만에 본격 가동되지만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

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각오다. 특히 '공중폭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에는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미세먼지 저감법 등 주요 사회·환경 법안에 대한 논의도 벌이며 개혁입법 모멘텀을 살려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제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역시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적극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을 집중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논의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방송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도 주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전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원구성 합의의 전제조건이

기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국회의 순항을 가를 변수다. 일각에서는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순식간에 청문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재공전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18일로 예정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동반 미국 방문은 향후 정국을 부드럽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레 초당적 협치 무드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계파 갈등 '전면전'

김성태, 거취 언급에 전쟁 선포... 오늘 의총·내일 전국위

자유한국당의 계파 갈등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의원총회와 17일 전국위원회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사퇴를 주장한 친박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의원에게는 인신공격까지 퍼부었고, 언쟁이 격화하자 몸싸움까지 벌어졌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다음 날인 13일, 김 권한대행은 친박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쟁을 선포했다. 또 당내 갈등과 관련해선 친박과 비박의 구도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자신의 거취 문제를 제

기하는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계파에 기인한 조직적인 것이라는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선·김도읍·김진태·김태홍·박대출·이장우·정용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의총을 거듭할수록 김 권한대행의 독선과 오만이 결국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16일 의원총회와 17일 전국위원회에서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후보 5명 중 16일 의총에서 후보를 선정해 17일 전국위에서 최종 추인을 받는다는 방침이나 실제 혁신 비대위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 '전대룰' 신경전

국민의당·바른정당 출신간 임기·여론조사 등 이견

바른미래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9·2 전당대회에 경선룰을 놓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지난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바른미래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전당대회 룰이 경선 승패를 좌우할 변수인 만큼 치열한 '룰의 전쟁'이 예상된다.

15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바른정당 출신 이해훈 의원이 위원장, 국민의당 출신 이태규 사무총장이 간사를 맡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지도부 선출방식 논의 등을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일단 자기 당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됐지만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선출 문제, 전당원투표 및 여론조사 실시를 놓고는 입장이 갈린다. 현 바른미래당 당헌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통합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전대 후보 중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 2~4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을 맡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통합 정선에 따라 만든 당헌을 왜 고치려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전해철 불출마... 최재성·박영선·송영길 출마선언 임박

민주 당권경쟁 구도 윤곽... 김진표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대 최대 변수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해찬 전 총리의 거취는 아직 최종 정리되지 않았지만, 후보 등록일(20·21일)이 다가오며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후보는 속속 늘고 있다.

우선 4선의 김진표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보는 박병계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두 번째다. 하지만 호남 민심의 주목을 받았던 폭포 출신의 전해철(재선) 의원은 이날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직접 당대표로 나서면서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 등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조그마한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면 저는 다른 역할을 찾는 것이 마땅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과 전 의원의 거취가 정리되면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진영 당권 주자들의 교통정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친문 주자인 최재성 의원은 당권 도전 쪽으로 결심을 굳히고 원내지도부에 상임위원

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7선)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등판' 여부가 결정되는 개각 흐름 등을 지켜보고 거취 발표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대전·충남·충북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당권 도전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초선의 김두관 의원은 전남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집권여당 리더로서의 구상을 밝혔고, 5선의 이종걸 의원도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100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공정함과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4선의 박영선 의원은 17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흥 출신의 4선 송영길 의원은 1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의 설훈·이인영 의원은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다시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담판'이 쉽지 않아 '각자도생' 쪽으로 정리하는 분위기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는 3선의 유승희 의원, 재선의 전현희 의원, 초선의 김종민·김해영·김현권·박정·박주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4선의 안민석 의원은 최고위원 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 대신 하반기 기획재정부위원장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인 유은혜 의원도 출마의사를 접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남 출

신의 박광은 의원은 지난 10일 '문재인인의 대변인'이라고 자칭하며 이미 출마선언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253개 지역위 개편 완료

223곳 단수추천... 여주시갑 등 전남 3곳 사고지역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253개 지역위 가운데 223곳에 대한 단수추천을 최종 의결했다. 광주지역 8개 지역위와 전남지역 6개 지역위는 조지강화특위의 안대로 지역위원장을 확정했고 광양·곡성·구례, 여주시갑, 여수시를 지역위는 사고지역위로 처리했다. 또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는 신문식 전 의원과 김승남 전 의원 간 경선을 실시토록 했다.

지역위원장 경선지역은 고흥보성장흥

강진과 대구 동구을을 포함해 모두 7곳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경기 화성갑과 경기 용인병에서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송옥주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경선에 나선다.

최고위는 이번 경선에 한해 ARS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참모진 등에 대한 배려차원의 직무대행 체제 지역은 모두 9곳으로 확정됐다.

한편, 문화상 의원이 이날 국회외장에 선출됨에 따라 공석이 될 의정부갑은 추후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분할매매 가능)
- 문의. 010-6834-7400

